현대 일본의 사회와 문화

 2140178일본어일본학과
 정지훈

현대 일본인의 사회, 문화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 강국 중 하나이며, 다른 아시아 문화들과 비슷한 점들도 많지만, 일본만의 고유한 문화의 색이 매우 짙은 편이다.

일본의 문화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섬나라 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대륙과의 왕래가 힘들었기에 그만큼 다른 문화의 유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다른 대륙 등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섬나라 이기에 예로부터, 분쟁이 생겨도 도망칠 곳이 한정 되어있다는 섬의 특성과 옛날 무사 계급 중심의 사회의 영향으로 일본인들은 예로부터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며 칼같이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과 단체를 극도로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것을 ‘메이와쿠’ 라고 부르며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꺼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배척하며 왕따를 시키는 ‘이지메’로 이어지는 문화는 아직까지도 현대 일본에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주는 말로 분쟁을 피하는 것을 ‘다테마에’ 라고 한다.

다테마에와 혼네는 일본인의 대표적인 이미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의 대표적인 사회 문화의 모습 하면 보통 ‘다테마에’와 ‘혼네’ 가 나온다.
‘다테마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표면적으로 들어내는 가면이고, 자신의 진짜 속 마음은 ‘혼네’ 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싫어하고, 분쟁을 피하는 것을 원하는 일본인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인 ‘혼네’를 그대로 들어내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속으로는 이해못하고 반대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렇습니까,그렇군요 등 여러가지 맞장구를 쳐주며 자신의 마음을 숨긴다.
거절을 할 때도 바로 거절을 하지않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등의 대답으로 얼버무린다.
물론 일본인들에게는, 다테마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분쟁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이지만, 이런 이중성 때문에 일본인은 겉과 속이 달라 믿을 수가 없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기도 했다.

어찌됐든 겉으로는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일본인들의 모습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본인은 친절하다’ 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매우 친절하게 대하는 일본은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다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위선적인 표현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며 자신들의 ‘혼네’를 그대로 드러내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일본의 가족 문화를 살펴보면, 최근까지 일본은 유교로 엄격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한국보다도 가부장적인 제도가 매우 강한 편이었다.

 목욕을 할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가족들이 아버지가 목욕한 물로 차례로 목욕을 하거나, 아버지가 목욕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저녁과 술안주, 맥주를 준비하여 상을 차리는 등의 여러가지 가부장적 문화가 최근까지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어릴 때 봐왔던 일본의 만화만 봐도 당연하게 나왔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이 사라진 편이고, 목욕도 그냥 먼저 집에 온 사람 순서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일본은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의 성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것 또한 옛날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부동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여성들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이나 불만을 가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필자의 일본인 친구들에게 부부 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별의 요소가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물어보니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고, 차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한 적 없다고 하였다.

예절 문화에 대해서도 한국과 다른 점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일본인들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 들어 있다.

한국과의 차이점 또한 크기 때문에, 일본에 관광을 간다 거나 할 때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 해주기 위해 미리 인터넷 같은 곳에서 일본에서 지켜야할 예절 문화를 알아보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현대의 일본 예절 문화를 알아보자면 대표적으로는 전철, 버스 대화나 통화를 하지 않는 것 이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전화나 대화를 하는 것은 어렵지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대화를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자기들만 들리게 소근소근 말하는 경우가 많고, 전화가 왔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이라면 바로 전화를 끊거나 받지않는다.
요즘은 중, 고등학생 등의 젊은 사람들은 시끄럽게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본의 대중교통은 보통 굉장히 조용하다.

그리고 별개로 한국 전철과 다른 전철 문화가 하나 더 있는데, 노약자석에 누구든 앉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노약자 외에는 앉는 것이 거의 금기시 된다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노약자석에는 노약자가 없을 때는 누구든 자유롭게 앉을 수 있다.
물론 노약자가 앞에 오면 바로 비켜준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도 일본의 예절 문화가 있는데, 바로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으로 일렬로 서서 타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에스컬레이터의 왼쪽은 바쁜 사람들이 먼저 지나 갈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남녀노소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키는 기본 예절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친구들끼리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대화를 할 때도 일렬로 타고, 앞의 친구가 뒤돌아서 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한쪽으로만 타는 것 문화가 조금씩 퍼지고 있다.

또 일본의 거리를 걷다 보면, 거리의 쓰레기들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적다.
일본인들은 쓰레기가 생기면 보통 자기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놓고 휴지통이 보이면 그때서야 버리고, 담배꽁초 또한 보통 흡연자들은 개인 휴대용 재떨이를 들고 다니며 거기에 담배꽁초를 넣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화이다.

다양한 일본의 문화

현대의 일본 의복 문화

일본의 패션은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한국과 다른, 개성적인 면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일본의 개성적인 스타일들은, 현대에서 스트리트 패션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 개의 유행하는 패션이 있다면 다들 그 패션을 따라하고, 눈에 띄는 패션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매우 자유분방한 패션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일본의 의복 문화는 매우 진보적이고,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문화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유동적으로 받아들여,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의 패션, 메이크업 등이 유행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다른 문화와 자신들의 문화를 섞어서 또 다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문화예술 - 아니메 문화

아니메란 원래는 애니메이션을 일본식으로 줄여서 부르던 말 이었지만, 현대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칭하는 말이 되었다.

아니메는 일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문화이며, 세계로 퍼진 ‘아니메’는 애니메이션 자체의 재미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 나온 일본의 여러가지 문화들을 외국인들이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게 해주고, 일본에 흥미를 느낀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관광을 오는 등, 일본의 문화를 전 세계로 퍼뜨린 일등공신 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메는 극장판, 관련 상품, 게임과의 콜라보레이션, 아키하바라 등 다양한 곳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일본의 아니메 산업 시장 규모가 2조엔을 돌파 할 정도로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 정부 또한 이러한 아니메 등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정부가 아니메 같은 문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주는 ‘COOL JAPAN’ 정책을 펼쳐 일본의 아니메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60%이상을 일본이 제작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아니메 문화는 매우 발달되어 있다.

마치며

일본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마찰 없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인들의 ‘메이와쿠’와 ‘和’ 정신 등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여러가지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문화와 합치며 더욱 새로운 문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 또한 계속해서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문화들은 ‘온고지신’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닌자,스시,사무라이 등의 일본 고유의 역사, 문화들은 물론, 여러가지 현대의 사회, 문화 까지도 외국인들은 아니메,영화,드라마 등의 다양한 매체로 쉽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다양한 고유, 현대 문화들은 전 세계로 퍼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 답게 예로부터 일본과 다양한 문화를 교류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점도 많지만, 우리는 일본에게 우리의 문화를 전파 하기도 하고, 문화를 받아오기도 했기에 일본과 우리는 비슷한 점 또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일본과의 불화로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매국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국이지만, 옛날부터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등으로 뗄 레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이웃나라 이기에, 서로가 매일 다투는 것 보다는 함께 발전의 미래로 가는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